

인천보육+

2021. Spring + Summer.

Vol.56



CONTENTS

발간사

01

보육브리핑

02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열린어린이집” 알아보기

보육INFO

07 2021년 보육사업안내 무엇이 변경되었을까?

10 2021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주요 변경내용

즐거운 보육이야기

13 어린이집 보육현장 공감스토리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생 정보

30 코로나19 백신 어디까지 알고있니?

센터소식

32 센터와 함께해요.

33 센터의 지난 이야기

유관기관 소식

36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소식

부록

37 한 눈에 보는 2021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주요 법정 의무교육



2021. Spring + Summer.

Vol.56

발행인 마미정 발행일 2021.6. 발행처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0 전 화 032-431-4606~9 팩 스 032-431-4610

홈페이지 <http://incheon.childcare.go.kr> 이메일 iccic@icda.or.kr 디자인·인쇄 진원디자인프린텍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마미정입니다.

2021년 6월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스스로에게도 그리울 정도로 코로나 19가 주는 현상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여 하반기에는 우리의 움츠렸던 일상에서 이전과 같은 활력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저희를 조금 기운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 심화되어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의 통계적 수치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보육의 의미와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보육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존중의 마음 전합니다. 센터 역시 여러분과 마주하는 시간보다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소통을 진행하고 있어 여러분의 다양한 요청사항에 만족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름의 초입에서 보육이라는 캔버스를 의미있게 채색하고 계시는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여러분!

2021년에도 정부 및 지자체는 다양한 보육정책의 실행을 위해 여러 가지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 보육+에서는 보육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어린이집 평가제 변경사항, 열린어린이집 알아보기 등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보육현장에서 들려주신 '즐거운 보육이야기' 당선작 게재를 통해 보육현장에서 행복하고 가치있는 보육의 의미를 실천하시는 사례들을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보육교직원 주요법정 의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책 마무리에 절취할 수 있도록 실었으니 많이 활용하시고 센터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하여 상시적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영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 1856~1950)는 '희망을 품지 않는 자는 절망도 할 수 없다.(He who has never hoped can never despair.)'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보육 일과에서 저희는 행복이 주는 여운보다 미래에 대한 예측 불안이 주는 여진이 더 힘들게 여겨지도 하지만 보육에 대한 우리의 참된 소명과 가치 실현을 위한 희망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절망을 논할 수 없으므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때 순간 여러분의 일생을 조화롭게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점 더 여름 깊숙이 시간은 흘러가겠지만 여러분의 노고에 늘 함께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마미정 드림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열린어린이집" 알아보기

(출처: 2021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안), 인천광역시)

사업목적

- ◆ 가정과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동반자적 관계 구축함으로써 안정되고 개방적인 양육환경 제공
- ◆ 소통과 참여를 통해 서로 신뢰하고 지지적인 관계 형성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조력

추진실적

- ◆ 선정 현황 : 641개소(신규 309, 재선정 166, 선정유지 166)

〈 어린이집 유형별 선정 현황 〉

(단위: 개소, %. 기준: '20.12월)

구분	내용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어린이집(A)	1,943	230	11	12	684	925	76	5
'20 열린 어린이집(B)	641	179	4	5	160	273	20	-
선정율(%) B/A	33%	77.8%	36.3%	41.6%	23.3%	29.5%	26.3%	-

〈 군·구별 선정현황 〉

(단위: 개소, %)

구분	내용										
	계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2019	340 (16.6%)	33	13	30	80	40	48	29	59	3	5
2020	641 (33%)	45 (40.9)	15 (34.1)	54 (25.1)	124 (42.8)	125 (37.2)	104 (32.4)	40 (21.5)	121 (29.3)	6 (42.9)	7 (50)

'21년 사업개요

- ◆ 추진기간 2021년 4월 ~ 12월
- ◆ 선정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으로 참여·선정
- ◆ 선정목표 680개소 이상(35%)
- ◆ 선정시기 2021년 10월 중
- ◆ 사업절차
- ◆ 평정기간 2020년 10월 ~ 2021년 9월
- ◆ 선정기준 신규(재선정) 선정 시 세부 선정기준을 적용 후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 이상인 어린이집을 신규(재)선정



'21년 추진목표

목표

부모참여 중심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로 안심보육 환경 조성



추진
과제

과제

세부 과제

1. 열린어린이집 확대

- 1 열린어린이집 확대(641개소 → 680개소, 35% 이상 선정)
- 2 인센티브 확대
- 3 운영승계 기준 완화

2. 열린어린이집 내실화

-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활동 인정기준 마련
- 2 운영위원회 지역사회 인사 참여 활성화

3.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관리 업무 간소화

- 1 열린어린이집 신청 및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
- 2 열린어린이집 통계 시스템 구축

'21년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

구분	내용	점수
선정 요건	① 개방성(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 창구) -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중 1개 이상 설치)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30점
	② 참여성 가.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나. 부모 개별 상담(연 2회 이상) 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조합(협동어린이집) 총회(분기별 1회 이상) 라. 부모교육(연 2회 이상) 마.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바. 부모만족도조사(연 1회) 사.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 연중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아. 자체 부모모니터링(연 2회 이상)	40점
	③ 지속가능성 가.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의견 조사(연 1회) 나.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분기별 1회)	10점
	④ 다양성 가.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연 2회 이상)	5점
	⑤ 지자체(인천시) 자체 선정기준 가. 부모교육 이수 나. 부모의 주도성 다. 아동학대 예방 노력	15점

- ◆ 신규(재선정) 선정 시 세부 선정기준을 적용 후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1. 개방성(20점) 2. 참여성(30점) 3. 지속가능성(5점) 4. 다양성(3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종합점수 상위 순(재선정은 80점 이상)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신규(재)선정 해야 함

'21년 열린어린이집 인천광역시 지자체 점수 기준

구분	선정기준	비고
5. 지자체기준		15점
가. 부모교육 이수	- 어린이집 재원 부모대상 부모교육 이수 여부 ① 재원영유아 부(모)의 20%이상 이수 ② 재원영유아 부(모)의 10%~20%미만 이수 ③ 재원영유아 부(모)의 5%~10%미만 이수 * (완화기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혹은 실시간 화상 원격교육 실적 인정	8점 *세부 점수표에서 교육주제 안내
나. 부모의 주도성	- 운영위원회, 부모 전체회의 등에서 열린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논의 및 반영 여부 - 부모자조모임(3인 이상)구성 및 운영 ① 운영계획 ② 부모자조모임 안내문 ③ 실시횟수(2회 이상) * (완화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실시간 화상 원격회의 및 원격모임 실적 인정	4점
다. 아동학대 예방 노력	-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 집합교육 참여 ① 50%이상 참여 ② 30%이상 참여 ③ 20%이상 참여 * (완화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실시간 화상 원격교육 실적 인정	3점



< 열린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 설명 >



가. 어린이집 재원 부모대상 부모교육 이수 여부

- ◆ (개 요) 아동권리, 자녀양육 등을 위한 부모교육 참여도 여부 확인
- ◆ (평정기준) 실시기록(참석자명단, 이수증 등) ◆ (확인방법) 현장확인 ◆ (배점) 8점

나. 열린어린이집 계획 및 운영, 부모자조모임에 대한 부모의 주도성

- ◆ (개 요)
 - 열린어린이집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어린이집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니라 부모들과의 협의와 소통 여부 확인
 - 부모 자발적 자조 모임(3인 이상)을 구성 및 운영
- ◆ (평정기준 및 배점)
 - 열린어린이집 계획 및 운영(2점) : 운영위원회, 부모 전체회의 등에서 열린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회의 및 논의 후 반영 여부
 - 확인방법 : 회의록(회의 진행 후 논의된 사항과 반영 여부 작성 확인)
 - 부모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2점)
 - ① 운영계획 ②부모자조모임 안내문 ③실시횟수(2회 이상)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 운영계획 수립 및 안내만 충족 시 부분점수 1점부여
 - * (예) 양육도서 읽기, 엄마가 먼저 읽는 동화책 모임, 애착인형 만들기 등,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제외
 - 확인방법 : 계획서, 안내문, 참여명단 및 실시기록 확인

다. 아동학대 예방 노력

- ◆ (개 요) 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참여 여부 확인
- ◆ (평정기준)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시 아동청소년과 주관 교육)에 의한 집합교육 참여율
- ◆ (확인방법) 현장확인(이수증)
 - ※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 센터,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시 아동청소년과 주관교육
- ◆ (배점) 3점

'21년 열린어린이집 인천광역시 지자체 점수 선정기준 관련 Q&A

Q&A 질의 응답



**부모교육
이수**

Q1 열린어린이집 선정 지자체 점수를 확보하고자 할 때, 부모교육은 몇 가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1 재원 영유아 부(모)의 20%이상이 3가지 이상의 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Q2 부모교육 3가지 이상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재원 영유아 부(모) 이수자가 20%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 점수는 0점인가요?

A2 아닙니다. 부모교육 이수 점수는 총 8점으로 재원 영유아 부(모)의 20%이상 이수 시 8점, 10%이상 ~20%미만 이수 시 4점, 5~10%미만 이수 시 2점으로 차등 배점됩니다.

Q3 재원 영유아 부(모)의 20%이상 기준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A3 열린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당시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Q4 재원 영유아 부(모)의 20%이상인 경우 인원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A4 재원 영유아가 56명인 경우, 재원 영유아 부(모)의 20%이상으로 8점을 받으려면 $56명 \times 0.2 = 11.2명$ 으로 반올림 기준 11명의 부(모)가 3가지 이상의 교육을 이수 하면 됩니다. 58명인 경우에는 $58명 \times 0.2 = 11.6명$ 으로 반올림 기준 12명의 부(모)가 3가지 이상의 교육 이수하면 됩니다.

Q5 재원아가 12명 이하인 어린이집입니다. 재원 영유아 부(모)의 20%이상 기준으로 산출했을 시 2명이 부모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 기준 조건인 3가지이상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요?

A5 아닙니다, 12명 이하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2가지 이상의 교육이수 시 8점, 1가지 이상의 교육이수 시 4점, 교육이수를 안할 경우 0점으로 배점이 이루어집니다.

Q6 어린이집에 형제(자매·쌍둥이)가 다닙니다. 형제 엄마가 참석하게 되면 2명으로 인정되나요?

A6 네,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기준이므로 2명으로 인정됩니다.

Q7 형제(자매·쌍둥이)가 A어린이집에 1명, B어린이집에 1명 재원하고 있습니다. 형제엄마가 부모교육에 참석하였다면, 2곳의 어린이집 모두 인정되나요?

A7 네, 교육을 받은 부모님께서 이수증을 출력하여 A, B어린이집 각각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Q8 부모교육은 해당 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센터에서 들어도 되나요?

A8 네, 인천시 관내 타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이수 시에도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Q9 부모교육 중 기타교육기관으로는 세이버더 칠드런만 가능한가요?

A9 네, 2021년에는 교육운영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시에서 사전 검토 및 교육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추가교육 기관에 대한 선정 여부는 익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자조
모임**

Q1 부모자조모임의 운영계획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1 열린어린이집 연간 계획 수립 시 부모자조모임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포함 또는 부모자조모임을 위한 별도 계획 수립을 의미합니다.

Q2 어린이집에서 부모자조모임의 안내문을 부모에게 안내했다면 운영계획이라고 볼 수 있나요?

A2 아니요, 안내문은 공지사항이므로 계획으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21년 열린어린이집 인천광역시 지자체 점수 선정기준 관련 Q&A

Q&A 질의 응답



부모자조모임

Q3 부모자조모임 안내문의 형식은 있나요?

A3 아니요, 부모자조모임의 안내문의 형식과 내용은 어린이집 자율입니다. 또한 부모자조모임을 했다는 결과 공지는 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Q4 부모자조모임의 실시 횟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4 어린이집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임 구성을 여러 모둠 할 수 있으나, 실시 횟수는 모임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한 모둠 당 2회 이상이어야 실시 횟수로 인정됩니다.
예) 인천어린이집 A모둠 구성 / 6~7월 / 실시횟수 2회 → 인정,
광역어린이집 A모둠, B모둠 구성 / 6월(A모둠 1회), 7월(B모둠 1회) → 불인정

Q5 부모자조모임의 실시 횟수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나요?

A5 부모들이 모임을 한 후 온라인 소통창구를 이용하시거나 (스마트알림장, 어린이집 홈페이지, 카페, 페이스북, 밴드...등) 원장님 혹은 담임교사 개인의 메일, SNS 등으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예: 인증사진, 소감문 등 *어린이집에서 소통방식은 정하여 부모에게 안내하여 회신되는 자료로 실시 횟수를 관리합니다.

Q6 참여성의 마. 부모참여프로그램과 부모자조모임은 다른가요?

A6 네, 부모자조모임은 부모들 간의 부모됨과 양육, 육아의 공감 나눔, 재능나눔(성인대상)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과정의 참여의 의미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참여성의 부모참여프로그램과 부모자조모임과는 별개입니다.



아동학대 예방노력

Q1 보육교직원의 인원 산정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A1 부모교육 이수 인원산정 시점과 동일합니다. 열린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당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2 아동학대예방 전문기관의 사이트에 녹화 후 탑재된 동영상 강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2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전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필수교육입니다. 다만 열린 어린이집 지자체 점수에서는 시특화사항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집합(코로나19로 인한 실시간 원격 화상교육 인정) 교육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이트상에 녹화 후 탑재된 동영상 강의는 지자체 점수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본 지표는 열린어린이집 지자체 점수 지표에만 해당되며, 법정 의무교육 등에서는 인정됩니다.)

Q2 보육교직원 인원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A2 인원 산정 방법은 부모교육과 동일합니다. 보육교직원이 11명인 경우 보육교직원 전체 인원의 50%이상 참여한 5점을 받으려면 11명 × 0.5 = 5.5명으로 반올림 기준 6명의 보육교직원이 집합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Q2 아동학대 예방관련 교육 기관은 제시된 기관 외의 교육은 인정이 되지 않나요?

A2 네, 2021년에는 보건복지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에 따라 교육운영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시에서 검토 및 교육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제시된 교육 기관의 교육만 열린어린이집 지자체 점수에 포함됩니다. 추가 교육기관에 대한 여부는 검토 후 익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표는 열린어린이집 지자체 점수 지표에만 해당되며, 타 기관에서 강화된 복지부 지침 준수하에 실시된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 등에서는 인정됩니다.)

기타

Q2 우수프로그램 필수 제출은 기존대로 유지되나요?

A2 아닙니다. 2021년부터 지자체 점수에서 제외되며, 신청대상은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참가를 희망하는 열린어린이집으로(당해연도 신규선정은 제외), 세부계획은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1년 보육사업안내 무엇이 변경되었을까?

2021년 꼭 알아야 할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출처: 2021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구분	2020년	2021년
상위연령 반편성	-	<p>→ <신설> 단, 만0세아를 상위연령으로 반편성하여 만0세아만으로 만1세반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p>
연장보육 시간	<p>-</p> 	<p>→ <신설> ※ 연장보육반의 영·유아 혼합반 편성이 가능한 경우 -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 정부미지원 시설이 지역 내 수급상황(인근 지역 여유 정원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만2세-만3세 혼합반,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와 유아의 영유아 혼합반 편성 가능(기본 보육반의 연령별 반편성 예외 조건과 동일) ※ 탄력편성 아동은 시스템상 연장반에 등록하지 않으며, 보육일지를 통해 관리</p>
입소 및 퇴소	<p>다만, 선 순위자 등원결정을 위해 7일 이상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원장이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 가능 ※ 7일 이상 전화, 문자, SNS, 우편, 직접 방문 등(총 3회 이상)을 통해 확인(근거자료 필요)</p>	<p>→ 다만, 선 순위자 등원결정을 위해 공휴일 제외 3일 이상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원장이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 가능 ※ 공휴일 제외 3일 이상 전화, 문자, SNS, 우편, 직접 방문 등(총 3회 이상)을 통해 확인(근거자료 필요)</p>
특별활동 운영	<p>(대체프로그램 운영)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야 함</p>	<p>→ (대체프로그램 운영)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하여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대체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야 함</p>
보육아동의 건강관리	<p>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치료하고 조치해야 함</p>	<p>→ 감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치료하고 조치해야 함 → <신설> 원장은 해당 영유아가 재등원하는 경우 증상 또는 감염력이 소멸됨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요구 가능</p>

구분	2020년	2021년
급식·위생 관리	<p>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조리사를 배치해야 함</p> <p>※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의무 (식품위생법 제8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중독 등 위생관리 철저 2. 영영사 업무방해금지 및 위생관리사항 협조·준수 	<p>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조리사를 배치해야 하며 보존식을 보관하여야 함</p> <p>※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의무(식품위생법 제88조)</p>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 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p>어린이집에서는 SNS, 게시판 등을 통해 매일 실제 제공하는 급·간식 사진을 공개하도록 함</p>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p><신설></p> <p>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을 시행(2020.11.27.)으로 종사자에게 응급처치실습(소아심폐소생술 포함)등의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의무화</p> <p>안전교육 이수 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 이외 기관에서 교육 이수 하는 것 지양</p> <p>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안전사고예방교육을 어린이집당 1인 이상은 참여</p>
안전관리 책임관 제도	-	<p><신설></p> <p>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을 제17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담당자 역할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	<p><삭제></p> <p>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p>	<p><신설></p> <p>※ 장애아전문보육교사: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p>



구분	2020년	2021년
영유아 성 교육 담당자 지정	-	<p>➔ <신설> 영유아 성 교육 담당자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에서 영유아 성 행동 문제 관련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보육교직원 중 영유아 성 교육 담당자를 지정 - 역할: 영유아 성 행동 지도 상시 관리, 성 행동 지도 및 대응방법에 대한 보육교직원 전달 교육, 영유아 성 행동문제 발생 시 대응 등 <p>*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참고</p>
등·하원시 안전관리	-	<p>➔ <신설>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 실시</p>
호봉승급	<p>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2회 시행</p>	<p>➔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 ※ 적용시기: 2021년 7월 1일부터 실시(호봉 자동 산정 시스템 개발 이후)</p>
호봉 인정기준	<p>* 보육교직원 휴직 시 호봉인정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전후휴가 90일 이내(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이내) 및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 확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 1년 이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기간은 호봉확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p>➔ <신설> 유아교육법상 교원의 자격을 가진 기간제교사 포함</p> <p>* 보육교직원 휴직 시 호봉인정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90일 이내(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이내)의 출산 전후휴가 기간은 호봉확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자녀 1인당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확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90일 이내의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호봉확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1년 이내 휴직 기간은 호봉확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련	-	<p>➔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지원 사유(최우선, 기간제한 없음) 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②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③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관 (3~8주)동안 대체교사 지원가능





2021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주요 변경내용

(출처: 2021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21))

◆ 일반사항 및 운영체계

구분	2020년	2021년
평가대상 선정	미인증 어린이집은 대상선정 통보 후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신규평가 어린이집은 개원일(또는 운영 재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며, 대상선정 통보 후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실시
등급 결정 및 평가주기	-	<신설> 결과발표 이후, 평가과정 중 발생한 법 위반 및 행정 처분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종합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음
최하위 등급 (D등급) 조정사유	- 	<신설> 다만,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에 대한 자발적 신고 및 결정적 증거 최초 제공(부모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 제보·신고 이전에 이행한 경우에 한함), 성실한 조사 협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상시적 예방 노력(모니터링,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이 인정될 경우 최하위 등급 조정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최하위 등급 (D등급) 조정 후 처리절차	-	<신설> 최하위등급 조정결과 공시 3개월 경과 후 사후방문 지원 대상으로 통보하고 사후방문지원 실시

◆ 평가지표

구분	2020년	2021년
영역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2-5-④ 매일 실내 놀이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배정하여 운영함	-	<신설> → 해당 반에 연장보육 영유아가 있는 경우, 해당 영유아의 놀이시간까지 인정함
1-5-3-① 원장은 반별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어린이집 전체의 보육과정 운영을 파악하고 있음	(중략) 원장은 각 반별 보육계획안, 보육 일지, 담임교사와의 면담, 보육실 관찰 및 지도 등을 통해 반별로 보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평가하여야 함	(중략) → 원장은 각 반별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담임교사와의 면담, 보육실 관찰 및 지도, 학습공동체 운영 등을 통해 반별로 보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평가하여야 함
영역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2-3-2-③ 16시 이후 보육되는 영유아에 대해 놀이 및 휴식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신설> → 연장보육반은 특별활동을 신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기본보육 시간에 특별활동을 시작하여 연장 보육시간까지 이어지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2-4-1-③ 부모교육(아동학대 예방교육 포함)을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음	-	→ 부모교육의 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 있음. -----(중략)----- ※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된 경우 도 집단모임으로 인정 가능함
2-4-2-②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연 2회이상 개별면담하고 주요 면담내용을 기록, 관리함	-	→ <신설> 대면면담이 원칙이나, 대면면담이 어려운 경우 유선상담으로 진행 가능함.
2-4-3-①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을 월 1회 이상(영아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 기록이 있음	-	→ <신설> 감염병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연계 활동 으로 계획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기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한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음 예시- 지역사회 경찰관, 소방관, 보건소 직원 등이 실시간 화상으로 진행 하는 교육활동, 기부, 물품 증정, 미니캠페인 등



구분	2020년	2021년
<p>영역3 건강·안전</p> <p>3-2-1-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하고, 보존식을 보관함</p>	<p>-</p>	<p><신설>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존식은 영하 18℃ 이하의 상태로 보관 시간(144시간)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음</p>
<p>3-3-3-① 개별 영유아의 건강검진 서류,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관리함</p>	<p>만5세의 경우, 7차 영유아 건강검진까지 모두 실시하였다면 건강검진 실시주기를 고려하여 평정에서 제외함</p> 	<p>만5세의 경우, 8차 영유아 건강검진까지 모두 실시하였다면 건강검진 실시주기를 고려하여 평정에서 제외함 ※ 2021년 1월부터 영유아기 건강검진 영유아 초기(생후 14일~35일) 검진이 신설됨에 따라 영유아기 건강검진 차수가 7차 -> 8차로 확대됨</p>
<p>3-4-3-③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음</p>	<p>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사이버 교통신학 교통신학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및 오프라인교육)에 한해 인정함</p>	<p>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함</p>
<p>3-5-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p>	<p>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받은 기록이 있음.</p>	<p>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받은 기록(이수증)이 있음. <신설> 단, 어린이집 자체교육 시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이 진행해야 함</p>
<p>영역4 교직원</p> <p>4-1-1-② 원장은 전문가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p>	<p>(원장) 지난 1년 동안 원장으로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p>	<p>(원장) 지난 1년 동안 원장으로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보육과정 운영 및 어린이집 재무회계 등을 포함한 교육을 이수하였는가?</p>

2021년 보육·놀이 에피소드 공모 그 첫 번째 이야기 '즐거운 보육이야기'

어린이집에서 경험한 즐거운 보육에피소드를 공유해요.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과의 즐거웠던 보육 에피소드, 나만의 어린이집 업무 스트레스 해소방법, 동료와의 성장 에피소드, 부모와의 갈등 극복 체험기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분들의 다양하고 감동적인 사연 속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늘 고민하고 지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참여해주신 모든 보육교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올 해도 부탁해

서구청직장어린이집 최윤미 교사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

“너는 참 좋겠다. 애들이랑 하루 종일 놀아주기만 해도 월급이 나오잖아. 얼마나 좋아.”

놀아주기만 하면? 아이들과 놀이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 놀이를 위해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지 그들은 알고 이야기하는 건지 가끔은 억울하단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린이집 교사는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없다. 대강 마셔야 한다고나 할까?

어린이집 교사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다. 오늘은 몇 번이나 다녀왔을까?

어린이집 교사는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한다. 툭툭뚫뚫한 눈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어린이집 교사는 휴게시간이 있어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다. 언제 쉬란 얘기지?

이렇게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내가 아직까지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건 ‘선생님,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하며 어깨를 주물러 주는 교사리 손, ‘우리 선생님이 제일 예쁘다’는 세상 착한 거짓말, 그들이 펼쳐 놓는 엉뚱발랄한 이야기들을 위로 삼아 하루를, 아니 20년을 버티 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모두 힘든 한 해였다.

물론 나에게도 모든 순간이 힘들게 느껴지는 한 해이기도 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들이 모두 엉망이 되고, 계절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답답한 교실 한 공간에서 일 년을 보내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늘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에 대해 불평하던 내가 평범한 일상을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적이 있었던가 싶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니 마스크 뒤로 숨어 버린 서로의 감정을 알 수 없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했고, 수시로 아이들의 컨디션을 살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긴장해야 했고, 아이들의 놀이에서 코로나란 단어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며 참 먹먹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하기에 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는 건 당연했고, 늘어난 업무를 해야 하기에 참 바쁘고 정신이 없었다. 정말 숨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힐링 포인트가 필요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외부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기에 원내에 있는 작은 텃밭이 나에게 힐링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원장님이 처음 텃밭을 만들어보자 제안을 했을 때만 해도 ‘아

일이 또 하나 늘어났구나’라고 생각하며 걱정하고 불평했었는데, 일을 하다가 답답하면 잠시 나가 숨 한 번 크게 쉴 수 있는 그 작은 공간이 나에게 힐링 공간이 될 줄은 몰랐다.

땅을 고르고 농작물을 심어 키우다 보면 풀 뽑기, 매일 물주기,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워 주기, 진딧물 제거하기 등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았던 것 같다. 물론 혼자 텃밭을 가꾸는 건 아니었기에 선생님들과 함께 땅을 고르고, 퇴비를 섞으며 그 안에 숨어있는 지렁이들을 보면서 뭐가 그리 재미있었는지 한바탕 웃어보기도 하고, 텃밭을 정리하고 청소 할 때 힘든 일을 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 시달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사소하긴 하지만 힐링 타임이었을 지도 모르겠다.

교사들의 수고를 느꼈는지 꽃, 농작물들도 배신하지 않고 그들의 역할을 다해 하루하루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여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아이들과 함께 텃밭에 나가 꽃, 농작물을 심고 가꾸어 열매 따 먹기, 오이 따다 오이 마사지하기, 봉숭아꽃을 키워 손톱에 물들이기, 상추 따다 달팽이 밥 주기, 옥수수 나뭇잎으로 돛단배 만들어 띄우기. 분꽃 씨 안에 숨어있는 가루로 그림 그리기 등 아이들과 자연물을 이용해 다양한 놀이를 하며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나 또한 순간순간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눈이 많이 오는 날 아이들과 함께 텃밭에 나가 눈사람도 만들고, 주변 눈치 볼 필요 없이 소리치며 눈싸움도 하면서 아이들 보다 내가 더 행복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간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일까? 일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늘 행복할 수는 없다.

아이들이 일 년 365일 언제나 천사일 수는 없으니까, 학부모들이 언제나 내 편일 수는 없으니까, 동료 교사가 언제나 내 맘 같을 수 없으니까, 언제나 내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친구인 척 달래가며 같이 가야 한다.

예전 같으면 예쁜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 수다 떨기,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하기, 땀 흘리며 운동하기 등의 사소하고도 평범한 방법들로 스트레스를 달래주곤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우울함이 느껴졌다. 곧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나를 위로할 수 없었다.

우울함이 느껴질 때, 업무 스트레스가 밀려와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나에게 어린이집 뒤 작은 텃밭은 작은 힐링 공간이 되어 주었던 것 같다.

처음 널 만나기 전 많아질 일만 생각하고 불평해서 미안해!!

올 해도 잘 부탁해~~



로나야~ 로나야~ 코!로나야~

제일풍경채2차어린이집 이보람 교사

로나야~ 로나야~ 코!로나야~
너는 왜 소리 없이 찾아와서
나를 자꾸 힘들게 하니

밥 먹고 돌아서면 마스크
낮잠 자고 일어서도 마스크
때와 장소 안 가리는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가 흘러서
콧구멍이라도 보이면
코!로나 찾아올까
눈까지 당겨 매고

에취! 에취! 재채기라도 나오면
입술 꼭 잡아 물고
요리조리 가자미눈
눈치 보는 놀이시간



로나야~ 로나야~ 코!로나야~
너는 왜 소리 없이 찾아와서
나를 자꾸 힘들게 하니

이제라도 사라져주면
내가 너 용서해줄게

로나야~ 로나야~ 코!로나야
멀리 가라 멀리 가라
어린이집 찾아오면
흔구멍을 내줄거다



나는 엄마 선생님

모아미래도어린이집 최미라 교사

매 년 새 학기 상담 때가 되면 00이가 생각한다. 다른 영아들과 조금 다른 00이는 처음으로 나에게 “엄마 선생님”이라고 불러준 아이다. 조금은 느리고 서툰 00이는 말이 없고 또래와 놀이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00이의 어머니는 00이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조심스러워하셨고, 나 또한 혹시 나의 사소한 언행이 어머니께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워 말을 아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바깥 놀이를 나가 시소만 즐겼던 00이는 놀이를 마치고 들어가는 교사 말에 시소에서 내리기 힘든 건지, 더 놀고 싶은 건지 시소에 앉아 있었다. 짝꿍 선생님께 다른 영아들을 인솔하시어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린 후 느리지만 스스로 내려오려는 00이를 한발 물러서 기다려 주었다. 조심조심 몸을 움직여 이내 스스로 내려온 00이는 환하게 웃으며 나에게 다가와 안겼다. “잘했어!” 00이를 진심으로 꼭 안아주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날 무렵 전화가 울렸다.

“저, 00이 엄만데요. 00이 지금 데려가겠습니다.” 나즈막히 떨리는 목소리였다.

“네! 어머니, 준비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어느덧 어머니는 도착하셨고, 빨강계 상기된 얼굴로 00이를 안고 뒤돌아섰다.

“저기,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하자 울음을 애써 참는 목소리로 “선생님이 우리 00이만 놓고 가려고 하셨죠?” 하는 순간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하고 물으니, 어머니 말씀으로는 설거지하며 창밖으로 00이를 보셨다고 한다. 선생님들이 다른 아이들을 인솔하여 돌아가려고 하였고 00이만 계속 시소에 앉아 있어 속상한 마음에 고개를 돌려 버리셨다고... 오전에 실외 놀이를 보고 오해를 하신 모양이다.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울컥한 마음을 누르고 조용히 말씀드렸다.

“어머니, 혹시 제가 어디 있었는지 보셨나요?”라고 이야기 하니,

“아니요. 아이들만 들어가는 걸 봤어요. 함께 들어가신거 아니에요?” 하며, 눈물로 얼룩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네, 짝꿍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셨고요, 전 00이 뒤 한 발 떨어진 곳에서 혹시 다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00이가 스스로 내려 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순간 어머니는 애써 참고 있던 울음을 토해내셨다.

“어머니, 우리 00이 이제 스스로 시소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하며 미소 짓자,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잠시 흐느끼다 말을 이으셨다.

이전 어린이집에서 조금 느린 00이가 선생님을 힘들게 한다는 말을 들었고, 우리 원에 와서도 혹여 교사가 힘들어 00이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고 속상하셨다고 하셨다. 이에 “조금 느린 친구는 기다려 주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 같아서 기회가 있을 때 스스로 해내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전 00이의 엄마 선생님이든 어떻게 우리 00이를 놓고 가요.”라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00이가 도움이 많이 필요한 아이라고 생각하셨으며, 지금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하셨다.

이후 어머니는 00이 육아에 항상 나의 의견을 물어보셨고, 나는 어린이집에서 보이는 모습과 함께 00이 행동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 어머니와 상의하고 서로 격려해 주는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작은 오해가 제일 믿고 신뢰해야 할 부모와 교사 간에 불신을 만들어 신뢰는 무너진다.

부모 상담을 앞두고 부모와 교사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다. 상담을 위해 부모님을 만나면 어떤 부모님들은 ‘혹여 저 교사가 우리 아이를 제대로 보육하고 있는 것이 맞나?’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공격적인 대화를 이끌어 가신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는 아이를 함께 보육하는 입장에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부모는 먼저 교사를 ‘나와 함께 우리 아이를 키워 줄 사람’으로 생각해 주고, 교사는 부모와 함께 소통하며 부모가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을 공유하여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끔 어머니와 갈등의 기미가 보이면 ‘엄마 선생님!’이 말을 떠올린다.

‘내가 어머니 입장이라면..’ 혹은 ‘아이를 위해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 나는 보육교사이자 엄마 선생님이기 때문에 소중한 아이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경계하는 눈빛 대신 협력하는 눈빛으로, 서로 상처 주는 말보다는 서로 힘이 되는 말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





수고의 시간 vs 최고의 시간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어린이집 김자선 교사



1인칭 주인공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

병방어린이집 오서경교사

지금부터 나는 보육현장에서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나만의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다. 매우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이지만 그에 비해 매우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스위치를 켜면 어두웠던 공간이 순간적으로 밝아지듯 스트레스에 놓인 나를 발견하는 순간 내 마음속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된다. 나와 나를 둘러싼 상황을 바라보는 시점을 순간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첫 번째, 나는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다.

주인공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주인공이 겪는 어려움의 강도가 세고 치열할수록 영화는 더욱 극적인 재미를 준다. 카메라는 계속해서 주인공을 따라간다. 주인공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결국은 극복하고 일어선다.

“나는 지금 영화 속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카메라는 계속해서 나를 비추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품위’를 잃지 않고 싶어진다. 고뇌와 번민이 있더라도 나를 너무 놓아버리거나 험클어뜨리지 않는다. 최대한 우아하게 고민한다. 고민하다보면 좋은 방법이 떠오를 수도 있고 하다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멋있게 번뇌 하며 그 시간을 지낸다. 주인공이니깐...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어서 나를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영화의 스토리를 끌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보는 관객이 되는 것이다.

어렸을 적에 ‘스누피와 찰리브라운’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아주 좋아했다. 거기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개성만점이다. 폐소공포증 때문에 집 안이 아닌 지붕에서 잠을 자는 스누피, 사랑스러운 루저인 찰리 브라운, 오빠를 오빠로 대접하지 않는 여동생, 손가락을 빨며 애착이불을 들고 다니는 아이, 주인공을 못살게 구는 아이, 지저분한 아이...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이상적인 캐릭터는 아니지만 스누피와 찰리브라운을 볼 때 스트레스는 커녕 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어린이집에서 만나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 주지 않고, 친구를 괴롭히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고뭉치... 때로는 보육교사로서 자괴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아이들 때문에 힘든 순간이 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속의 스위치를 켜서 3인칭 관찰자로 시점을 전환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스누피와 찰리브라운’의 등장인물

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도 내 속을 썩이던 아이 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만화 속의 캐릭터가 된다. 덩치는 제일 크면서 빨간 망토 이야기 속의 늑대 이야기만 나오면 선생님 무릎으로 튀어오르는 빨강이, 걸음걸이가 가장아장하는 막내이면서도 자기보다 훨씬 큰 친구들에게도 절대로 지지 않는 썬 언니 노랑이, 아직 말을 전혀 못하면서 손짓과 몸짓으로 모든 의사소통이 가능한 초록이, 뜻대로 안 되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울면서도 선생님의 말에 “오케~이!” 한 마디하고 다시 우는 파랑이, 새침한 똥몰이지만 알고 보면 허당 검정이, 심한 편식예 밥 먹는 시간만 되면 하루에 한 번씩 눈물바다를 만드는 분홍이... 밀고 망가뜨리고 쏘고 싸우는 개구쟁이들이지만 제3의 관찰자가 되어 찬찬히 보면 하나같이 사랑스럽고 개성이 톡톡 튀는다. 피식 웃음이 새어나올 때도 있다.

시점의 변화! 내가 발견한 매우 효율적이고 즉각적이며 경제적인 나의 스트레스 관리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주는’, 또는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받은 것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내가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 중 하나인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내가 하는 것들은 아이들에게 ‘이미 받은 것을 갚는 일’이다.

때로 힘들고 고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나에게 그 이상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존재이다. 나에게 이미 복이 되어준 그들에게 내가 복이 되어주는 일... 나는 꼭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장려상

3년 3색의 도전

파란나라어린이집 김민정교사

저는 영종도 하늘도시 3년차 만1세 전문 리액션의 여왕 김** 선생님이십니다. 영종도에 이사 와서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저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하늘도시에 있는 여러 어린이집에 전화를 합니다.

첫 번째 도전~ 실패ㅠ

다시 다시 3번의 전화 끝에 “♫파란 나라를 보았나~ 네 ** 어린이집입니다.”

나 : 네 저 선생님 혹시 뽑으시면 이력서 제출하고 싶어서요~

어린이집 : 네 선생님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릴게요~

나 : 네 ^^

마침 교사를 뽑을 예정이라고 하셨다.

어린이집 : 저 선생님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나 : 네 내일가면 될까요?

이렇게 나에게 운명처럼 어린이집은 다가왔다. 7년의 유치원 경력에 있는 나는 나를 자신감이 조금은 있었다.

어린이집에 입성한 순간 본 중 제일 예쁜신 원장님과 각자의 캐릭터가 분명한 3분의 선생님들. 그 어디보다 전문가의 느낌이 물씬 나고 서류정리, 리본 묶는 솜씨, 매 달 행사마다 가랜드를 꾸미는 손놀림, 너무 완벽했다. 육아하느라 조금씩 자신감이 없어졌던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은 도전이 되고 어린이집은 늘 새롭고 배울게 많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게 해주는 곳이었다.

2019년 3월 2일 만1세 투담임반으로 배정을 받았다.

맑은이슬반의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은 맑은반, 나는 이슬반을 맡아서 일하는데 1주일동안 영아와 어머니께서 같이 응원하여 적응하기에 돌입하자 내 심장은 ‘두근두근’ 등에서는 땀이 났지만 ‘나는 프로다!’라는걸 어머니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을 다했다. 나만의 밝은 에너지를 보여드리고 영아들이 편안하게 응원할 수 있도록 현관 문을 열면 두 손을 흔들면서 (**랜드의 인사법을 응용해서 나만의 인사법으로 바꿔서) 인사하는 나의 모습을 보자 함께 두 손을 흔들어주시는 어머니, 할머니도 계셨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 또한 힘을 내서 보육 할 수 있었다.

맑은 반 선생님과 1년 동안 함께 같은 공간에서 보육을 함께 해야 하기에 힘이 맞지 않으면 1년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맑은반 선생님께서는 만약에 영아와 교실을 둘러보는 놀이를 하던 중 영아가 시계에 관심을 가지면 영아가 관심을 갖고 더 놀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다음날 확장해서 손목에 차는 시계는 만들어 제공해주었다. 영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놀이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

함께 일을 하다보면 힘들 때 나는 그 당시 유행했던 “괜찮아요? 많이 놀렸죠~”이 유행어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했다. 같이 모여 가위질을 하다가 누군가 가위질을 잘못하는 경우에 “어? 괜찮아요?

많이 놀렸죠?” 하면서 힘들고 지치는 순간 함께 웃을 수 있는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해 조금이나마 뿌듯했던 순간이었다.

2019년 12월. 내년에 일을 할 것인지, 어떤 반을 맡을 것인지에 대한 원장님과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다가왔다.

“선생님은 또 만1세 혼합반을 맡게 되지요~”

“어? 왜 또 혼합반이예요?”라고 물으니 맑은반 선생님께서 내가 다른 누구와도 잘 어울리며 어디에 있어도 잘 감당해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주셔서 다시 만1세반을 주셨다고 하셨다. 너무 감사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오래 못 버틸거 같더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시고 이곳 파란나라에 남겨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했다. 맑은반 선생님은 반 아이들과 함께 형님반으로 올라가고 나는 또 다른 선생님과 함께 202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선생님은 영아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점심을 먹을 때, 오늘 나온 반찬이 시금치면 영아에게 “시금치를 먹으면 우리 몸은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 한번 선생님이 먹어볼게~” 하면서 영아들이 머뭇거리는 순간에 영아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셔서 여러 모습들을 배울 수 있었다.

2021년, 나는 또 만1세 혼합반을 맡았다. 나는 이제는 다른 반을 하고 싶기도 하고 혼자 반을 꾸려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 다시 부동의 만1세를 맡았다.

또 다른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 선생님은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정말 꿀맛나게 잘하신다. 영아가 공을 갖고 놀면 “와~ 우리 친구 꼭 축구선수처럼 공을 잘 차는구나!” 하면서 칭찬해주는 모습을 배울 수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성장시켜준 선생님들과 원장님~ 그리고 우리 영아들이 있어서 더 힘이 난다.

너희들이 있어서 매일매일이 새로워~

도전할 수 있는 선생님이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어서 고맙고 사랑해~♥



나무인가 했더니... 흙

청라푸른어린이집 배미서 교사

20년 한 길을 걸으며
그 길에 서 있는 화려한 나무이고 싶었다.
해가 거듭되며 나이테가 생기듯
내 얼굴에도 주름이 지어 갈 때
그게 내 성장의 흔적이라 여겼다.

20년쯤 했으면
아름드리 나무는 아니어도
새가 집 지을 만큼
뿌리 깊은 나무라 여겼다.

바람 불면 흔들리고
눈비 오면 오로시 몸으로 다 맞아도
움튼 싹 품고서 화려함을 꿈꾸는
4계절 나무라 여겼다.



23년쯤 되니 이제야
나는 나무가 아니라 흙이었구나!
나무가 주는 기쁨에 웃고
나무가 주는 흔들림에 뿌리 잡아주는
해마다 떨어진 잎 보듬으며
좋은 성분으로 변해가는
나는 흙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나무가 좋았구나!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친구여 너도 흙이었구나!
나무인가 했더니 너도 흙이었구나!

너희들의 소리

산곡3동어린이집 조 성 은 교사

‘딩동~’ 소리에
너희들을 반기고,

‘으앙~’ 소리에
너희들을 달래고,

‘해줘~’ 소리에
너희들의 엄마가 되고,

‘좋아~’ 소리에
너희들을 보며 웃고,

‘안녕히계세요~’ 소리에
너희들을 보내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한다.



봄.여름.가을.겨울우리는 친구가 되다

하버뷰어린이집 김경애 교사

봄.여름.가을.겨울...친구가 되다

아직은 매서운 꽃샘 추위처럼
너희들과의 첫 만남은 차가운 눈망울로 인사했지

이른 봄 개나리꽃처럼
너희들은 살짝 웃어주었지

여름에 만개한 장미처럼
너희들은 활짝 웃고 까르르 웃어 주었지



가을 알록달록 단풍처럼
너희들은 다양각색으로 개성 있게 자라주었지

겨울 함박눈이 내리는 하늘처럼 눈사람처럼
너희들은 나에게 포근하게 안겨주었지



이렇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면서
서로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었지



비상벨 점검중

우방어린이집 강문정 교사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소리가 아니에요

코막고 입막고
아이들이 뛰어나가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당황
원장님도 당황

불이 났나요?
무슨 일이 일어난걸까

이것은 실제상황
소방훈련을 기억한 아이들

상황을 파악하니
비상벨 점검중

아이들은 하나들 웃으며
선생님들도 하하, 호호

불이 나도
걱정이 없어요



숨바꼭질

소래휴먼시아어린이집 이 선 미 교사

가위바위보를 하지만 난 항상 술래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교실에서 아이들은 바쁘게 숨을 곳을 찾는다.

다 숨었니? 찾는다.
숨을 참는 아이, 두 손으로 눈만 가리는 아이.
손으로 입을 막아 보지만 '킥킥킥' 웃음 소리가 난다.

아직 숨지 못한 초록이를 두고
허공을 향해 이름을 불러본다.
“초록아? 초록이가 어디에 숨어있지?”

초록이는 나를 졸졸 따라와 내 옷을 잡아 당긴다.
“선생님 초록이 초록이 여기 있어요”하며
나를 껴안아준다.

다 찾았다. 숨바꼭질은 끝이 났다.
내일도 너희들을 기다리며 난 언제나 술래다.
항상 이 자리에서 기다리는 술래.



‘어떡해요’ 선생님과 ‘어떻게든’ 이겨낸 걱정의 성장기.

제일풍경채2차어린이집 이혜리 교사

때는 2019년 3월. 30대 중반으로 달려가는 적지 않은 나이었지만 어색하고 풋내 나는 초임의 티를 막 벗어던질 때쯤이었다.

같은 연령, 옆 반에서 동고동락했던 열 두 살 어린 띠동갑 선생님과 새로운 짝꿍이 되어 선임처럼 이끌어 나가야하는 무거운 완장을 팔에 둘러쓴 그 해. 나는 첫 해 담임을 맡게 되었던 설렘과 첫 나의 반이 되었던 아이들보다 더 강렬한 무언가를 얻게 되었다. 적극적인 학부모님들과 개구쟁이 아이들 속에서 ‘작년도 잘해냈으니 올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어차피 평가인정도 잘 끝냈잖아’라고 생각하며 자신만만하게 새 학기를 시작하였다.

지금 내가 거창하게 도입을 시작하는 이유는 정말 그 일 년은 새 학기 시작부터 목이 쉬어 터져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의 위기를 겪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다.

짝꿍 선생님은 스무살을 갓 넘긴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사람이었다. 겁도 많고 눈물도 많아서 옆 반 일 때도 언니처럼 이모처럼 다독이고 타일려주어야 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했었는데 짝꿍이 되어 곁에서 바라보니 그런 모습들이 가끔은 나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도 했었다.

만 1세반의 3월이 힘든 건 정리 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 뺏고 싸우고 넘어지고 치이고 물리고 꼬집히는 월경의 특성 때문인 것 같다. 그 해의 나의 기쁨이들은 서로 물리고 꼬집혀 집에 가는 일이 빈번했고 그 일은 내가 현관, 차량 단장을 나갔을 때마다 유난히 더 발생했다. 보지도 않은 일을 부모님께 설명하고 죄송하다고 표현해야함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나도 사람이다 보니 좋은 일만 이야기하고 싶고 교사로서의 자질을 자주 의심받는 것 같아 내적으로 우울함이 많이 생기기도 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더 지치는 건 짝꿍 선생님의 단골 레퍼토리 “선생님, 어떡해요”라는 말이었다. 사실 그 땀 나도 육아 경력만 화려한 겨우 2년차 교사였을 뿐이었는데 짝꿍 선생님의 학부모님까지 상대할 재간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짝꿍 선생님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대화의 팁을 알려주면서 코칭도 해보고 학부모 전화상담 시 옆에서 함께 들어주며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부터인가 그 반의 부모님께 내가 직접 연락을 돌려 아쉬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매번 물려가는 아이의 어머니가 무슨 아이의 어머니께 크게 불만을 표출하면서부터 일이 견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짝꿍 선생님은 “어떡해요”만 하고 있는데 수습은 해야겠고 나서지 않으면 마녀 사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양쪽 어머니들의 중간에서 수습하는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말이지 울고 싶을 때도 많았던 것 같다. ‘난 누구의 편도 아니고 모두의 선생님인데 평화롭게 반을 운영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 학기 초 적응기간에 삼삼오오 모여 카페로 이동해 연락처를 주고받고 단톡방을 만든 엄마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선생님 괜찮아. 내가 연락해볼게”라는 말을 매일 하며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오롯이 어린이집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목이 쉬어가고 머리에 새치가 늘어가고 체력이 떨어지고 신경질이 나고 지치기 시작했다.

어차피 담임을 맡아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었고 책임감 없이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판사판이다 정신을 다시 차려보자 하며 하루를 보냈고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과 즐겁게 활동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일과를 보내게 하는 것에만 꽂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케어하기 시작했다. 짝꿍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을 전담 마크하며 아침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라고 빠짐없이 기도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자 아이가 소꿉놀이를 하다가 일어나 이동하였는데 장난꾸러기 남자친구가 뒤를 따라 움직이는 상황이었다. 아이들은 별 뜻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인 거였는데 짝꿍 선생님이 오랜만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며 둘 사이를 떼놓겠다고 점프를 했다. 그런가보다 하고 다른 친구의 기저귀를 교체해주는데 짝꿍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oo이 머리 괜찮은지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이야기 했다. 순간 소름이 끼쳐 긴장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봤는데...세상에!!!!

짝꿍선생님 양쪽 쿡구멍에서 시뻘건 코피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아이들을 떼놓겠다고 점프를 뛰며 여자친구의 머리에 짝꿍 선생님이 얼굴을 박아 코피가 터진 것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이가 괜찮은지 봐달라며 말하는 짝꿍 선생님이 안쓰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결국 둘이 웃음이 터져 한참을 마주 보고 웃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예민하게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었구나.. 참 힘든 직업이다.’ 다행히 선생님과 부딪힌 아이는 아주아주 멀쩡했다. 반 아이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하여 서로 대화를 하게 되니 충돌의 횟수가 줄어들었고 수시로 어머니들과 이야기 나누고 소통했던 효과가 나타나며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선생님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 난리 법석인 와중에도 중간 퇴소자 없이 모두 무사히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유지했다는 자체가 나에게도 훈장이었다. 힘든 시기에 “어떡해요”만 외치는 짝꿍 선생님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앞장서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며 경험을 쌓고 인정받으며 조금 더 단단한 교사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짝꿍 선생님과 역경과 고난을 함께 이겨 낸 전우 같은 사이가 되어 자주는 아니어도 종종 서로의 소식을 전하며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 중이다. 지금은 잠시 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언젠간 또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내 과거의 짝꿍 선생님이 몸도 마음도 든든한 사람이 되어 “어떡해요”보다는 “할 수 있어요”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선생님 잘 지내고 있죠? 사실 나도 내색은 크게 안했지만 그 해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언니가 돼서 먼저 울 순 없어 힘을 내본 거였고 또 그 시간 속에서 위로 받고 파이팅을 하게 된 건 곁에서 같이 버텨준 선생님 덕분이기도 해요. 내가 더 많이 많이 고맙웠어요”

이게 머선 129

아시아드대광어린이집 김하나, 최윤경 교사

양말 신고 잠바 입고
모든 준비 끝
애들아 나가자
이게 머선 129
미세먼지 나뽀
미세먼지 너 나뽀
다시 양말 벗고 잠바 벗고

양말 신고 잠바 입고
모든 준비 끝
애들아 나가자
이게 머선 129
하늘도 울고
내 맘도 울고
다시 양말 벗고 잠바 벗고

양말 신고 잠바 입고
모든 준비 끝
애들아 나가자
이게 머선 129
마스크 속 콧물이 주르륵
내 맘 속 눈물이 주르륵
다시 양말 벗고 잠바 벗고

양말 신고 잠바 입고
모든 준비 끝
오늘은 정말 나가자
이게 머선 129
신발이 어디 갔지?
형님아 신발 돌려줘
상처 난 내 맘 돌려줘
다시 양말 벗고 잠바 벗고

양말 신고 잠바 입고
모든 준비 끝
오늘은 정말 정말 나가자
이게 머선 129
드디어 나왔다 나왔다
햇님도 나왔다
우리도 나왔다
직진본능 나왔다

양말 신고 잠바 입고
모든 준비 끝
나도 이제는 집으로
이게 머선 129
아이들 웃음소리
바람 타고 날아와
내 발길 붙잡네



이사를 축하해

월드어린이집 조 정순 교사

엄마의 국적이 중국인 초록아, 이사를 축하해.
 궁전빌라 지하 단칸방은 햇빛이 안 들어 와
 너의 속옷도 이불도 외투까지 곰팡이 꽃이 피어서
 사철 콧물 기침을 달고 사는 너의 건강이 걱정되었어.

한국말이 서툰 너의 엄마도 단칸방이 속상하대.
 일자리를 구하여, 이른 아침 유모차에 너를 태우고
 어린이집 문을 푹 푹 푹 두드렸지.
 엄마 안 떨어진다고 앙 앙 울던 때가 기억나니?

바쁘게 일터로 가는 엄마의 뒷모습은 밝았단다.
 약삭같이 돈을 모아서, 햇살 따뜻한 지상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꿈이래.
 방 두 칸 2층집은 두 번의 겨울이 지난봄이었지.

두 살인 네가 네 살이 되었고, 엄마가 자랑하셨어.
 창문을 열면 햇살이 가득하고요,
 초록이의 장난감 방을 만들어 주어서 행복해요.
 사진으로 담아 온 블록놀이방의 꾸밈을 축하했단다.



아빠 엄마는 초록이에게 햇살 비타민을 가득 뿌려서
 곰팡이 꽃도, 콧물 기침도, 눅눅한 이부자리도
 뽕송하게 만들어 주고 싶었대, 작은 꿈을 이루었대.
 초록아. 햇살 영양제 먹고 잘 자라렴. 이사를 축하한다.

준비, 땅!

꿈마루어린이집 박지현 교사

내가 할래!
손을 밀치는 세살이
눈높이를 맞추고
준비, 땅!

내가 먹을래!
순가락을 쥐는 세살이
만능 떡받이를 걸치고
준비, 땅!

내가 입을래!
바지를 뺀 세살이
바지에 발을 넣고
준비, 땅!

내가 신을래!
신발에 발을 넣는 세살이
찍찍이를 떼고
준비, 땅!

내가 할래!
스스로가 재미있는 세살이
너의 성장을 위한
준비, 땅!



장려상

황소? 황사!

제일풍경채2차어린이집 이주연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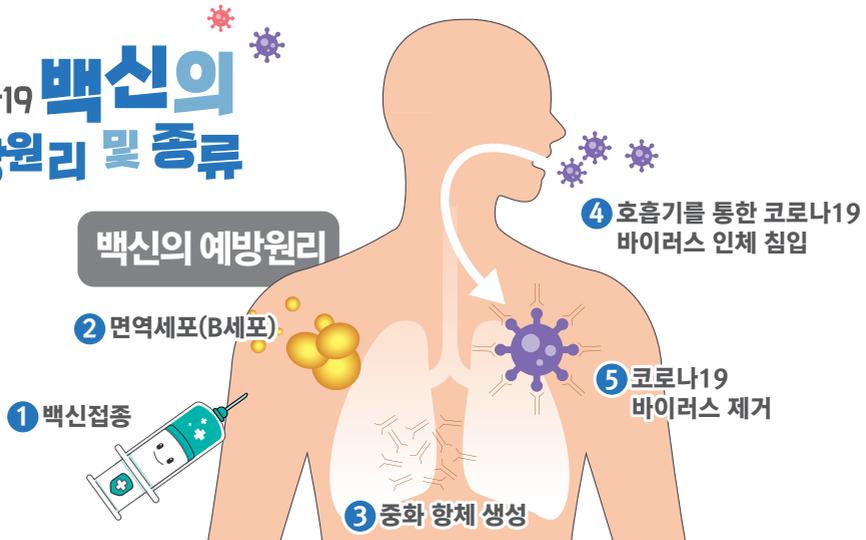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생정보

코로나19(COVID-19) 백신 어디까지 알고있니?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백신 종류와 예방원리		
구분	정의	종류
바이러스 벡터 백신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에 넣어 투여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불활화 백신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항원으로 사용	-
DNA백신	바이러스 항원을 발현시킬 수 있는 DNA를 투여	-
RNA 백신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RNA형태로 투여	모더나, 화이자
재조합 백신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들어 투여	-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바이러스와 유사한 입자 모양으로 만들어 투여	-

코로나19 백신의 예방원리 및 종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백신 진실 혹은 거짓 (2021.03.11. 기준)

Q. 백신이 코로나19를 유발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에는 살아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알아보기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몸에 주입하고, mRNA 백신(화이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유전자를 RNA형태로 몸에 주입하여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Q. 예방효과가 60%인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나의 면역력이 60%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백신 예방효과는 비접종군과 접종군 발생률의 상대적 개념으로, 수치 그대로를 개인의 면역력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백신 예방효과는 백신 비접종군과 접종군의 발생률 차이를 백신 비접종군의 발생률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WHO는 'COVID19 백신 평가 시 고려사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예방효과 기준을 최소 50%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감염병에 대한 백신과 비교해도 독감백신의 효과성은 60%정도, 대상포진 백신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51%정도의 예방효과를 보입니다.

Q. 코백스-화이자 백신관련 WHO 심사에 식약처도 참여했다고 하는데, 국내에 화이자 백신이 수입될 때 다시 허가·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A. 맞습니다! 식약처가 WHO 긴급사용목록(EUL, Emergency Use Listing) 등재 심사에 참여했다라도, 수입백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따른 국내 허가·심사가 필요합니다.

더 알아보기

식약처는 WHO로부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동심사 참여를 요청받아, 분야별 전문심사자가 공동심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WHO로부터 최초 승인된 화이자 백신(2020.12.31.)에 대하여 품질, 비임상, 임상 자료를 심사하여 2차례에 걸쳐 검토 결과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Q. 해외 여러나라에서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있는데, 백신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독감 백신을 포함한 모든 백신은 크고 작은 이상반응(열감, 두통, 주사부위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서 백신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 알아보기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엄격한 허가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특히, 3종의 자문 절차를 통해 안정성·효과성을 충실히 검토합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이상반응 등 안정성 정보에 대해 해외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Q. 화이자, 모더나 등 RNA 백신을 맞으면 접종받은 사람의 유전정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데,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백신의 RNA가 사람의 유전정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더 알아보기

사람의 유전정보는 세포의 핵 안에 DNA 형태로 존재합니다. 화이자, 모더나 등 RNA 백신에 의해 주입된 RNA는 세포 핵 밖의 세포질에서 작용합니다. 백신 RNA는 항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코로나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생성한 후 소멸되므로 백신의 RNA가 사람의 유전정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센터와 함께해요.



우리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심리발달 지원을 위한

영유아 건강성장 심리지원 사업



- ◆ 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영유아 〇〇명
- ◆ 모집시기
 - 상반기 모집 종료
 - 하반기: 2021년 7월 예정
- ◆ 상담기간: 영유아당 4개월 과정, 최대 16회기
- ◆ 지원내용
 - 영유아 및 부모: 영유아의 개별 행동특성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지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및 사례 워크샵 지원
- ◆ 참고사항
 - 저소득층 우선 선발
 - 2020년, 2021년 상반기 참여 영유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심리상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진행



나도 보육 척척박사

보육교직원 한마음 퀴즈대회

- ◆ 대상 : 관내 보육교직원
- ◆ 기간: 2021년 10월~11월
 - ※ 10월 중 안내 및 신청접수, 11월 중 퀴즈대회 진행 예정
- ◆ 참고사항
 - 보육사업안내, 보육정책 및 현안 등 보육관련 상식과 기타 인천의 문화, 예술, 상식 등의 문제 출제(사지선다형, 단답형, OX형 등)

보육교직원의 지친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한

보육교직원 마음휴식 프로젝트

-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 기간: 2021년 2월~12월
- ◆ 내용: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 특강 및 체험 교육 지원
- ◆ 참고사항: 매월 발송되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교육 신청 및 참여

보육교직원의 마음을 읽어주는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 기간: 2021년 1월~12월
- ◆ 내용: 영유아 및 학부모와의 관계, 개인성격유형, 직무 스트레스, 어린이집 영유아 성 행동문제 대응 등
- ◆ 상담방법: 온라인, 전화, 어린이집 방문, 센터내방 등(개별상담, 집단상담)
-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전화상담: 요청 시 답변 후 필요 시 대면상담 연계
 - 방문, 센터내방 상담: 매월 안내 후 신청 받아 어린이집과 일정 조율



센터의 지난 이야기



인천도농업네트워크 업무협약식



인천여성가족재단 업무협약식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분기 회의



광역·기초 육아종합지원센터
1분기 정기회의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상반기 운영위원회



대체교사 지원사업



신입 대체교사 오리엔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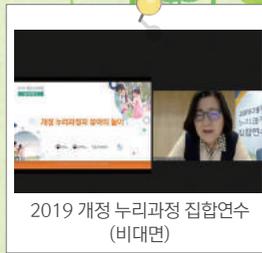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담당자 교육



대체교사 지원사업 모니터링

어린이집 지원사업



2019 개정 누리과정 집합연수
(비대면)



제4차 표준보육과정 연수(원장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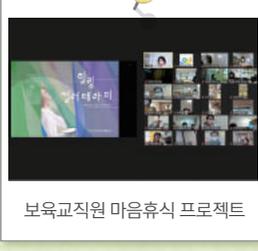
(보수교육연계) 안전사고예방교육
(보수교육연계) 아동학대예방교육



보육교직원 교육



안전교육



보육교직원 마음휴식 프로젝트



보육·놀이 에피소드 공모 시상식



「영유아 건강성장 심리지원」
심리상담센터 오리엔테이션



보육교직원 교충상담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현장방문/
소그룹/비대면/사후방문지원)



평가제 컨설팅
대상 오리엔테이션
/평가제 지표 및 사례중심 교육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체계 및
지표교육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업간담회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비상근 컨설턴트 양성교육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정기(기초) 및 중급(회계) 교육



가정양육 지원사업



공통 부모교육



도담도담 부모아카데미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래너」
컨설턴트 간담회



우리가족 주말 텃밭농장



아이사랑홈패키지-사계절 요리키트



인천광역시 맞춤형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행복한 육아이야기 공모전 시상식



부모상담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소식

인천광역시 보육정책간담회



21.2.26.(금)



허종식 국회의원님과의 간담회



21.05.03.(월)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과 간담회



21.03.16.(화)

월드비전 2020년 희망산타 캠페인
결과보고 및 감사패 전달식



21.05.26.(수)

70개소 어린이집 참여 - 6,193,203원 후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간담회



21.04.16.(금)

한 눈에 보는 2021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주요 법령의무교육

교육명	실시근거	대상	교육참고사항
이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p>이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p> <p>③ 이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이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모든 보육교직원	<p>교육시간: 매년 1회, 1시간 이상</p> <p>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p> <p>교육내용: 1. 이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이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3. 피해이동 보호절차</p>
이동학대예방교육	<p>이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p> <p>②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이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이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모든 보육교직원	<p>교육시간: 매년 1회, 1시간 이상</p> <p>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p> <p>교육내용: 1. 이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이동학대 주요 사례 3. 이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p>
어린이안전교육 (응급처치론 및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실습교육)	<p>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p> <p>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동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p> <p>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람(이하 "안전 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p> <p>1.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2.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p>	<p>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p> <p>※ 원장(보육집무 수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전담, 조리원, 운전사 등 대상자 미포함</p>	<p>교육시간: 매년 1회, 4시간 이상</p> <p>교육방법: 집합교육</p> <p>교육내용: 1. 응급상황 행동요령 2. 주요 낙·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3.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집단시설종사자 결핵감염예방교육	<p>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p> <p>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모든 보육교직원	<p>교육시간: 매년 1회</p> <p>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p> <p>교육내용: 대한결핵협회(https://www.knta.or.kr/) > 자료실 > 교육홍보 자료 >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용) 결핵예방영상 다운로드하여 활용</p>
성폭력예방교육	<p>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p> <p>① (중략)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중략)은 대동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시간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모든 보육교직원	<p>교육시간: 매년 1회, 1시간 이상</p> <p>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시청각 교육</p> <p>교육내용: 1. 안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성인지 관점에서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p>



교육명	실시근거	대상	교육참고사항
장애인식개선교육	<p>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p> <p>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모든 보육교직원</p>	<p>교육시간: 매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체험교육 등 교육내용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p>
기금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p>기금복지지원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3</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기금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금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기금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모든 보육교직원</p>	<p>교육시간: 매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교육내용 1. 기금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기금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3. 기금지원대상자 보호절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배움인(https://edu.kohi.or.kr/) 접속 기금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신청 후 수강) 이수증 출력</p>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p>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p> <p>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p>	<p>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원장(보육업무 수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전담, 조리원, 운전사 등 대상자 미포함</p>	<p>교육시간: 매년 1회 이상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교육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및 배포로 교육실행 가능 ①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 ②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p>
개인정보보호교육	<p>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모든 보육교직원</p>	<p>교육시간: 매년 1회 이상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자체교육 교육내용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 접속 - (온라인교육) 교육마당) 온라인 강좌 4개 중 택1 - (집합교육) 자료마당) 교육/홍보자료 다운로드 후 진행</p>
(보수교육연계) 아동학대예방교육	<p>2021년 인천광역시보육사업안내 p.31</p> <p>원장의 신고의무자 교육 외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 실시 - 원장의 교육강화를 위해 시 및 구 유아종합지원센터 보수교육 연계과정 아동학대 예방교육 3시간 의무 이수 반영(市 특별강화)</p>	<p>모든 보육교직원</p>	<p>교육시간: 매년 1회, 3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실시간 비대면 포함) ※ 해당교육 이수 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이수로 인정 ※ 보수교육 대상자가 이수 시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기간·인건 영역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p>
(보수교육연계) 안전사고예방교육	<p>2021년 보육사업안내 p. 123</p> <p>-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교육 이수 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유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수교육유평터관 이외 기관에서 교육 이수하는 것 지양</p>	<p>모든 보육교직원</p>	<p>교육시간: 매년 1회, 3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실시간 비대면 포함) ※ 보수교육 대상자가 이수 시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내 보수교육 기간·인건 영역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p>

※ 해당 교육은 2021년 보육사업안내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시·설 유형이나 규모, 직급에 따른 교육은 반드시 별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 &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6개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19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운영 중입니다.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안내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http://incheon.childcare.go.kr/>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교육, 정보 및 상담제공

부모다움

<http://bumo.iccic.or.kr/>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도담도담장난감월드

<http://www.dodamtoys.or.kr/>



장난감, 도서, 영상자료 무료대여

인천광역시 보육인플 시스템

<https://www.incheonpool.or.kr/>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관리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https://aincheon.co.kr/>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교육 및 컨설팅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cchildcare>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인스타그램

예술회관역점
<https://www.instagram.com/dodamtoys1>

경인교대역점
<https://www.instagram.com/dodamtoys2>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실현

